



## 미 증시, FOMC 경계심리 속 차익실현으로 하락

### 미국 증시 리뷰

31 일(월) 미국 증시는 FOMC 결과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유입된 가운데, 유로존 10 월 CPI 예상치 상회 에 따른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 강화 우려, 지난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되며 하락 마감 (다우 -0.39%, S&P500 -0.75%, 나스닥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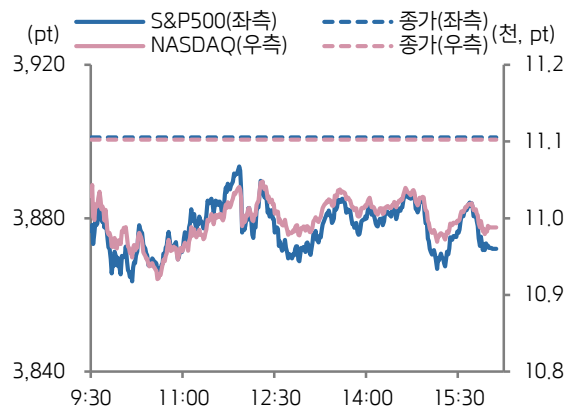
미국 10 월 델러스연은 제조업활동지수는 -19.4(예상 -17.4, 전월 -17.2) 기록하며 6 개월 연속 (-) 기록하며 부진. 신규주주 및 주문 증가율이 큰폭 하락하고 완제품 재고 수준 역시 (-) 전환한 것에 기인. 유로존 10 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0.7%(예상 10.3%, 전월 10.0%), 전월대비 1.5%(예상 1.2%, 전월 1.2%) 상승. 근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0%(예상 5.0%, 전월 4.8%) 증가. 지표 발표 이후 물가 및 침체 우려로 유로화가 악세전환한 영향으로 달러화는 강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도시에 공습을 재개하며 지정학적 리스크 재차 부각된 가운데,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수출하는 선박을 보호하는 곡물수출 유엔 협정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밀(+6.4%), 대두(+1.37%), 옥수수(+1.58%) 등 곡물이 급등. 또한 미국 내 올해 난방수요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천연가스 10% 급등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재차 상승.

전일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10 월 제조업 PMI 는 49.2(예상 49.8, 전월 50.1), 서비스업 PMI 는 48.7(예상 50.1, 전월 50.6) 으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위축 국면에 진입. 이러한 가운데 중국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추세로 정저우에 위치한 애플의 주요 공급 업체인 폭스콘 봉쇄 및 디즈니랜드 폐쇄 등 경제 봉쇄 조치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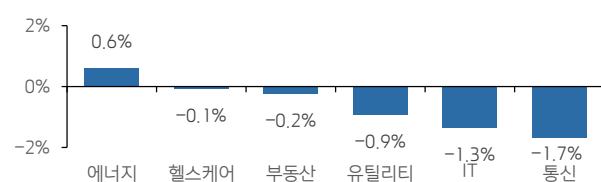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0.6%) 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헬스케어(-0.1%), 부동산(-0.2%) 업종의 낙폭이 가장 작았고, 통신(-1.7%), IT(-1.3%), 유틸리티(-0.9%) 업종의 낙폭이 컸음. 국제유가가 중국 경제 봉쇄 재개 및 유럽 침체 우려로 인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섹터는 엑손모빌 등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강세. 지난주 미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애플(-1.54%), 알파벳(-1.85%), 아마존(-0.94%) 등 주요 시총 상위 기술주들은 소폭 하락, 특히 메타(-6.09%)는 급락세 지속.

###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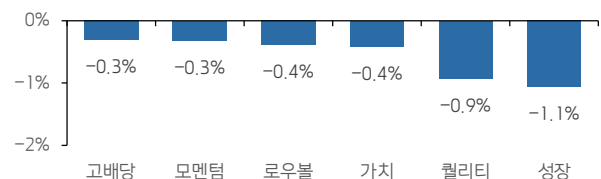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71.98	-0.75%	USD/KRW	1,424.98	+0.23%
NASDAQ	10,988.15	-1.03%	달러 지수	111.59	+0.76%
다우	32,732.95	-0.39%	EUR/USD	.99	+0%
VIX	25.88	+0.5%	USD/CNH	7.34	+0.01%
러셀 2000	1,846.86	+0%	USD/JPY	148.74	+0.02%
필라. 반도체	2,384.45	-2.0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583.79	+0.06%	국고채 3년	4.175	+5.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4.227	+5.2bp
Eurostoxx50	3,617.54	+0.13%	미국 국채 2년	4.482	+6.8bp
MSCI 전세계 지수	586.37	-0.44%	미국 국채 10년	4.048	+3.5bp
MSCI DM 지수	2,547.72	-0.5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848.16	+0.31%	WTI	86.53	-1.56%
MSCI 한국 ETF	51.81	-0.02%	금	1640.7	-0.2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는 0.02% 하락, MSCI 신흥국 ETF는 0.29%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보합.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426.9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본격적인 11 월 FOMC 영향권 진입에 따른 시장 경계심리 변화
2. 한국의 10 월 수출 결과(컨센 -2.1%, 9 월 +2.8%)
3. 두산에너지빌리티, 한미약품, 카카오페이 등 주요기업 실적 발표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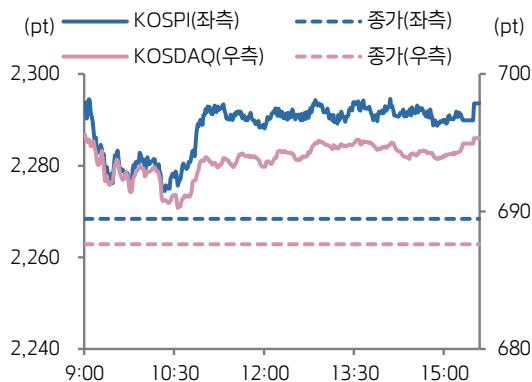
3 분기 실적시즌이 진행되면서 빅테크 기업 내, 여타 주요 업종 내 기업들간 실적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장은 본격적인 11 월 FOMC(한국 시간 2 일 새벽 결과 발표 예정) 영향권에 진입. 31 일 기준 CME Fed Watch 상 11 월 FOMC 에서 75bp 인상확률은 86%대로 사실상 75bp 인상은 유력하지만, 12 월 75bp 인상(49.7%) 혹은 50bp 인상(44.5%)을 놓고서 시장 참여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

이처럼 12 월부터는 연준의 정책 속도조절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10 월 한국이나 미국 등 주요국 증시의 주된 반등 동력을 제공한 것은 사실. 그러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제기한 WSJ 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논문을 근거로 “팬데믹 이후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중앙은행의 저금리”의 조합이 가계 저축액을 증가시켰다고 지적. 이는 금리인상에 대한 미국인들의 민감도가 크지 않게 만들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부담이 낮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는 상황.

최근 연준 내부적으로도 매파 색채가 다소 열어졌다는 점이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긴 했지만, 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해질 시에는 연준은 이를 차단하면서 증시 조절을 유발할 가능성 존재. 현재 시장도 지난 잭스홀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는 측면도 있는 만큼, 금주 내내 11 월 FOMC 불확실성이 수시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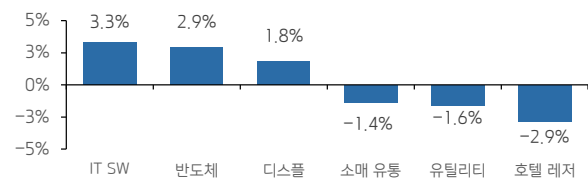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애플 폭등 효과 속 삼성전자(+3.7%) 등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1.1%, 코스닥 +1.1%). 금일에는 11 월 FOMC 경계심리 속 장중 발표 예정인 한국의 수출 및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으며 제한된 추가흐름을 보일 전망. 한국의 10 월 전체 수출은 대외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할 전망이다(블룸버그 컨센 -2.1%YoY, 9 월 +2.8%),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2차전지 등 주력 품목들간 수출 실적 결과에 따라 증시에도 관련 업종들 간 주가 흐름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

###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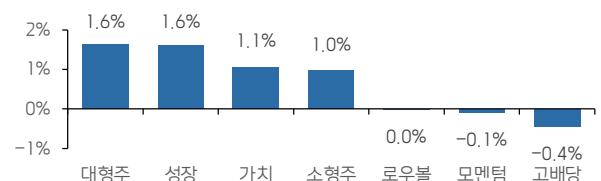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